

# 즐겁게 몰두할 이기적인 삶 살아라



##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의 성공비결

### ‘보여주기식 인생’은 스트레스만... 자신만의 관점 찾아야 ‘진짜 행복’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넓은 집에서 비싼 차를 타려는 욕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나 자기가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3일 전남대 공대에서 열린 리더십특강에서 주식회사 카카오 이석우(49) 공동대표는 자신의 성공비결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열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청년리더십 아카데미가 주최한 이날 강연은 ‘세상을 바꾸는 청춘스토리’라는 주제로 전남대학생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동안 펼쳐졌다.

강연자로 나선 이 대표는 전 세계 1억 4000만 명이 사용하고, 하루 메시지 전송건수 65억 건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만든 주역이

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처럼 달콤함을 준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카카오톡은 지난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메신저로 현재는 ‘국민앱’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카카오가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자 중 93%가 이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연간 매출액 2000억 원이 넘는 모바일 서비스 업체를 경영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IT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70년대 영어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따라 영국과 네덜란드에 가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외국에서는 영어를 못한다고 놀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어가 서툴다고 따돌림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 흥미를 갖게 된 분야는 역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사공부 하지 말라는 국사 선생님 덕분에 오히려 흥미를 갖게 됐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때까지도 역사학자를 꿈꾸는 학생이었다. 책 속에서 세상을 배우던 역사학도는 책 밖에서 세상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기자가 됐다. ‘언론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관문을 뚫고 일간지 기자가 됐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을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지난 1994년 기자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선택한 것은 로스쿨이었다. 미국에서 세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던 그가 IT업계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연히 미국을 대표하는 IT업체인 IBM이 한국지사에서 일할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는데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IT분야를 전혀 몰랐는데 IBM에서 일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루 섭렵했던 게 지금의 카카오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IBM 한국지사 고문변호사, NHN 미국법인장을 거쳐 현재는 카카오 공동대표인 그는 지금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큰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배우는 삶을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막연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위해 자신만의 관점을 강조했다.

“모두가 명문대학, 대기업, 높은 연봉이란 동일한 관점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개성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학생은 정답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학강연을 가면 어떤 직장이 좋은 곳인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직장을 타인이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은 무엇이고, 나에게 맞는 면접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관점을 찾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hot@kwangju.co.kr

## “날 폭력조직 두목으로 지목한 홍준표 전 검사 공개토론하자”

### 여운환씨 ‘모래시계’에... 출간 ‘진실 밝힐 것’



지능형 CCTV 개발 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여운환(61)씨가 최근 ‘모래시계’에 관한 시간(생각너머)을 출간하고 자신을 과거 광주의 폭력조직인 국제PJ와 두목급으로 지목하고 수사, 기소했던 당시 광주지검 검사였던 홍준표 현 경남지사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책을 펴내 검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씨는 책 발간과 함께 지난 14일 본지에 편지를 보내 1991년 당시 홍준표 검사가 자신을 국제 PJ와 두목급으로 둔갑시켜 실형을 선고 받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원이 ‘두목의 고문금 간부’라는 죄명으로 4년형을 언도했지만 정작 자신이 고문 역할을 했다는 진짜 두목의 실체도 없었고 밝히지도 못했이라며 폭력조직과 무관함을 항변했다. 이어 오래 전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지만 양심과 진실의 선고를 남아 있다며 국민을 배신할 것으로 모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지검에서도 그때 수사에 대해서는 진위논란이 일었다.

여씨는 책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진실 은폐와 조작된 행위’에 대한 아

쉬움을 솔화했다. 지난 1894년 10월 프랑스 참모 본부에서 근무하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의 사연으로 책을 시작하며,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과 유사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2년과 2001년, 폭력조직과 로비스트로 억울하게 연계돼 두 차례에 걸쳐 8년간 옥고를 치른 것도 입신과 권력에 눈이 먼 일부 검사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견 기업가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이유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여씨는 “공명심 강한 검사들과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 정치계가 만들어 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냈다. 또 다시 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세열기자 hot@

## 박삼구 연세대 총동문회장 재선



연세대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정기총회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28대 총동문회장에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총동문회장을 맡아왔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17년 5월까지이다. /양세열기자 hot@

## 광주대, ‘컴퓨터 SW 분야 최우수’ 선정

### 2013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광주대학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의 대학임을 입증했다. 광주대(총장 김혁중)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4일 발표한 ‘2013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컴퓨터 SW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의 협조를 받아 대교협이 주관

한 이번 평가는 컴퓨터(SW·전자반도체·정보통신·정유석유화학·정밀화학(화학품) 등 5개 분야에서 참여를 희망한 43개 대학 112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주대 컴퓨터공학과는 산업계의 요구 사항과 수요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의 분위기와 변화를 중점적으로 교육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독하게 구축된 산학협력체계를 활용한 기술지도, 캡스톤 디자인 수행, 재학생 전원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수행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평균 85%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도 주요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삼성전자, GS칼텍스, LG전자, 한글과컴퓨터, 아모레퍼시픽 등 총 32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 36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총 216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다. 기업체 현직 부서장 등 산업계 현장전문가들은 대학에서 배워야 할 핵심 직무역량이나 필수 교과목 등을 직접 추천하고, 대학의 교육과정과 산업계 요구의 일치도와 교육성과를 평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인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부장(2급) 전보 ▲창조혁신TF팀장 윤동훈 ▲항만운영팀장 유충호
  - ◇차장(3급) 전보 ▲창조혁신TF팀 박정철 ▲물류기획실 조성래
  - ◇과장(4급) 전보 ▲항만운영팀 양한모
- ▲여수사업소 박기순
  - ◇대리(5급) 전보 ▲창조혁신TF팀 송경준 ▲경영지원팀 김민규 정찬민 ▲재무회계팀 박천유 윤승현 ▲물류기획실 실경철

## 최상준 남화토건 부회장, 대한경영자대상 수상



최상준(76) 남화토건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대한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4 대한경영자대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경영학회는 최근 최 대표를 대한경영자대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오는 17일 한양대 경영관에서 열리는 2014대한

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장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최 대표는 창조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응해 왔고, 특히 신리 및 투병경영과 열린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학생들 미소가 가장 큰 스승의 날 선물”

### 동일전자정보교사 ‘코코아메이’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교장 노옥현)는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오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코아메이’ 행사를 열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

진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교사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격려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조성범(우암의료재단 이사장)·김영숙 씨 장남 승기군 이동신·김도연씨 장녀 예슬양=17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홀.
- ▲박상운·오정주씨 장남 근희(무안보건소·한의사)군 정중구·장유순씨 장녀 소라(의학연구소)양=18일(일) 오후 1시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 동창회

- ▲북성중학교 제15회 동창회 및 월례회=1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 월산 4동 우미추어탕 062-369-6998.
- ▲북성중학교 제18회 동창회 및 월례회=16일(금) 오후 6시 30분 일송정 062-529-6998.
- ▲북성중학교 제19회 동창회 및 월례회=19일(일) 오후 7시 광주 능성동 송산식당 062-351-0909.
- ▲조대부고 총 동창회(회장 김성호) 및 정기총회=21일(수) 오후 6시 30분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 062-224-1461.

## 향우회

- ▲재광 화순군 향우회 제38회 정기총회=17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히딩크관광호텔 6층 062-514-7142.

## 알림

-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

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 ▲사랑애돌봄사업단 사회전체 이익을 위한 공익형 사업으로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모집

-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테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 ▲아카데미 자원봉사사업의 지원봉사

자=월 3~4회 노인 돌봄·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 ▲중환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팔로몬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포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절주학당’=15일~6월 26일(총 7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오후9시까지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062-526-3370.

## 부음

- ▲최권식씨 별세 석호·순일·미하·은정씨 부친상=발인 15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 ▲김상석씨 별세 삼강·상일·상열씨 부친상=발인 15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7분향소 062-231-8907.

## ▲김형민씨 별세 윤학(사조해표 물류팀장)·윤택·윤숙·윤정씨 부친상 문한수(YTN 호남취재본부 카메라기자)·최철호(금호고속)씨 부부상=발인 16일(금) 광주수완 스키장장례식장 203호 062-951-1004.

- ▲변제연(전 장성군 재향군인회 회장)씨 별세 동학(우리은행 방글라데시지점 부지점장)씨 부친상 김지성(광주승덕고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심명섭(전남대학교 정보지원과장)·류영걸(웅기수산 부사장)·전중학(광주북부 소방서)씨 부부상=발인 17일(토) 광주보훈병원장례식장 제6분향실 062-602-6344.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101호 故지중근 남(남/68세)</b> 子/子婦: 지현진/장남선 女/婦: 지현정/민영애, 현숙 未亡人: 김선희 ●호 실: 101호 ●발 인: 5월 15일 ●장 지: 화순중년 선영 ●연락처: 227-4386	<b>102호 故권오정 남(여/89세)</b> 子/子婦: 정용삼/이미연 女: 장지영 孫: 장우선, 우현, 우정 ●호 실: 102호 ●발 인: 5월 15일 ●장 지: 담양 천주교묘지 ●연락처: 227-4386
<b>201호 故김진수 남(남/70세)</b> 子/子婦: 김태원/서은진, 태웅/박혜미 女/婦: 김은영/정윤기, 지경/홍영환 未亡人: 박의순 ●호 실: 201호 ●발 인: 5월 1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b>301호 故공기철 남(여/87세)</b> 子/子婦: 이정재/김희숙 孫: 조복환 ●호 실: 301호 ●발 인: 5월 16일 ●장 지: 보성 북내 선영 ●연락처: 227-4382
<b>401호 故김혜경 남(여/78세)</b> 子/子婦: 최재원/자혜미, 대웅/박진희 女/婦: 최현선/심삼림, 현주/김진서 ●호 실: 401호 ●발 인: 5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b>402호 故최주광 남(남/81세)</b> 子/子婦: 최재성/이난정, 지성 女/婦: 최정미/남경림, 경희/서승주 未亡人: 민순애 ●호 실: 402호 ●발 인: 5월 1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b>孝  금호장례식장</b> 마유곡지묘안함 http://www.mykumho.com	
<b>문의 (062)227-4000</b>	